

가정 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 연구*

—전통생활문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Value Orientation about Family
Norm between the older Generations and University Students

—Centering on traditional living culture—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教授 李吉杓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
Prof; Lee Kil Pyo

〈목 차〉

- | | |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seek a more practical way of life norm education of today's families on the basis of family rule in the traditional society by comparison between the older generation's family life rule education and college students.

The study was made by analysing rules in Chosun Dynasty, questionnaire nair was drawn up on the basis of i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ge students of one largest cities and their 800 parents.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by frequency analysis, ANOVA, interrelation, and regression which are used through SPSS computer programs.

Study results show that acceptance level is higher among the older generation, but the necessity of family standard education is urgent beyond the generations. Also people who have lived with grand parents feel more necessity of educating family norm. When the education could not be made in families because parents

* 본 연구는 성신여대 운정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cessive protection examination-centered education, and bad effects of mass media, then emphasis has to be made to create life culture which makes family norms to be kept continuously by the education at schools, education culture centers and public facilities.

I. 서론

우리사회는 문호개방후 약1세기 동안 겪어온 가치 체계 혼란에 관하여 많은 문제의 제기와 그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가치관의 정립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 사회의 교육과 그동안의 자각에 비하여 우리사회 전반적인 가치의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 볼 때 이는 가정 생활의 규범 교육 문제에서 그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규범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규칙 기준 또는 양식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의 가치체계를 내재화하고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 가르침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규범에 대한 의식은 오늘날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 간다면 미래의 우리 가정이 전통성을 지닌 올바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사회의 규범류에 나타난 내용중에서 현대사회에서도 수용가능한 가치의식을 바탕으로 세대간 가치의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간의 공통된 의식을 과거의 우리 가정생활 규범속에서 찾아 배워 나아가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가정규범의 내용을 문헌고찰한다.

둘째,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가정규범의 수용 정도는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에 어느 정도이며, 그 차

이는 어떠한가를 밝힌다.

셋째, 가정규범 교육을 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와 그 방법을 알아본다.

II. 이론적배경

1. 가정규범교육에 관한 문헌고찰

가정규범교육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한 국민의 생활예절 및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문화에서의 규범내용을 토대로 내용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조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발간된 아동, 남성, 여성의 생활교육서에 수록된 바로식생활, 의생활규범과 언어와 인사법, 부모집에 대한 생활규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생활규범에서는 첫째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한, 식사 중에는 먹는 소리를 찹찹거리고 내거나 반찬을 뒤적거리지 말아야 하며, 팔을 상위에 괴고 먹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수저는 함께 들고 사용하지 않으며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일깨우고 있다. 이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지속적인 훈계와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둘째, 좋은 음식만을 탐하지 말고, 또한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는 것이다. 어른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어른이 다 잠수시키도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일어나는 행동은 옳지 않다. 이 가르침은 소혜왕후의 「내훈」, 이덕무의 「사소절」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의생활규범에서는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바르게 입어야 하며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내용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옷을 청결하게 갖추어 입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속옷과 겉옷을 바르게 갖추어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옛 규범서의 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소혜왕후 「내훈」과 송우암 「계녀서」, 「예기」 내칙 등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옷을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것은 평상시나 경조사 때에 맞도록 옷차림을 달리하여 예에 어긋남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옷은 사치스럽게 입어서는 안된다는 경계 내용도 강조되어 있다. 이이의 「격몽요결」이나 「소학」에서는 군자로서, 선비로서 바른 옷차림이란 검소한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언어·인사생활규범의 내용도 몇가지 특징적인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바른 언어생활은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므로 헛된 말, 속된 말, 경솔한 말, 타인의 험담 등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이의 「격몽요결」, 이덕무의 「사소절」에서는 특히 그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속된 말, 은어, 속어, 비어를 흔히 사용하며, 의미를 알지 못할 축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언어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바다.

둘째, 여성으로서의 말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는 소혜왕후의 「내훈」에 잘 나타나 있는바, 여자의 四德 중 婦言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같은 가르침은 이덕무의 「사소절」, 송우암의 「계녀서」, 이황의 저서로 전해지는 「규동요람」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다. 여성으로서 말을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부모, 친척, 이웃, 노비마저 없수이 여기게 되므로 백가지 행실 중 이를 가장 경계한 것이라 되어 있다.

세째, 출입시에는 반드시 인사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출입시 자신의 행방을 가족, 부모에게 알리므로써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몸가짐에 대한 생활규범은 첫째, 몸가짐은 바르게 하여 항상 겉과 속이 한결 같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관계없이 몸을 바르게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격몽요결」에는 언급되어 있다.

둘째는 타인과 같이 있을 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라는 것이다. 부인으로서 단정한 행동을, 선비로서 짐작은 행동을 하도록 「사소절」, 「예기」, 「내훈」 등에 기록되어 있다.

세째, 몸가짐에 대한 훈계는 남성, 여성, 아동 모두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훈계 내용은 특히 사소절의 士典, 婦儀, 童規 모두에 자세히 실려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위에서 논의한 조선조 규범류의 가정규범교육 내용 특징은 매우 일상적인 행동거지를 상세히 일러 깨우쳐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학문적으로 익혀야 할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기록하여 읽고 깨우치게 한 바는 군자로서, 선비로서 바른 행실을 우선 닦아야 깊은 학문을 하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한 지식을 쌓는 자가 선비요, 군자가 아니라 우선 행동이 바른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생활규범을 준수하는 귀감이 될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글을 읽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또한 깊은 학문의 길을 권장하지는 않았던 여성에게도 올바른 인간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규범서를 읽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위의 규범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가문에서 자손들의 계도를 위해 훈계를 담아 지도한 가훈의 내용도 생활규범을 바로 잡아 가는데 일몹을 했다고 판단된다. 가훈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악한 것을 버리고 착한 것을 가려 처신할 것을 경계한 글이기에 어버이들의 경험의 산물(손인수, 1991, p.8)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규범교육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훈계내용이며, 계속적으로 배우고 닦아야 할 가치로운 바로 여겨진다.

2. 가정규범교육의 실제와 그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와 다른 가족들과의 대인관계를 맺고 나아가 사회와 학교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가족관계 속에서 자연히 터득하게 되며 그 집안

의 가훈이나 가풍 혹은 분위기 등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그 가정에서 하나의 가치기준이나 규범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가정에서 부부간의 호칭, 말씨, 부모의 언어, 행동 그리고 가족성원의 무언의 행동 등은 생활 예절이나 가정 교육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

전통사회에서의 가정규범교육은 가정에서 조부모, 부모, 일가친척이론과 형제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한국인의 행동규범은 가족 각자는 혈연과 지연으로 제약되기 때문에(변시민, 1982) 가족공동체내에서 가족 각자는 맡은 바 본분이 있었다.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삼대가 공존하는 가족공동체에서 먼저 손자는 할아버지로 부터 전인교육의 기본적인 수업을 받아야 하고, 아버지는 가족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졌으며, 할아버지는 가족구성원을 가르치며 도덕과 윤리 질서등을 일깨워주었다. 가정에서 어른들의 자녀교육은 가정의 규범교육이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규범교육은 매우 미흡하여 거의 부재상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비행의 원인은 대다수가 가정환경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J. H. Rankin, 1983, pp.466-479) 즉 결손가족, 부모의 태도, 경제적 빈곤등과 같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인간으로써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정 및 사회생활방식을 가르쳐주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상실했을때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정규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는 부모, 가족원들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그 교육의 주안점은 전통적인 가정규범교육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적 안목에서 어떻게 분석되며 확인되고 있는가를 재삼 일깨워야 하는데 두어야겠다. 이러한 교육은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에 숨겨진 현대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틀이 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생활 속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예비조사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보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가정규범의 수용정도,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 가정규범교육 경험과 문제점, 가정규범교육의 효과적인 방안등의 내용을 담은 총 51개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은 조선조의 규범서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식생활, 의생활, 언어, 인사, 몸가짐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에 3점, 그적그렇다에 2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3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가정관리분야, 한국가정생활사 전공자들로 부터 검증 받았으며,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신뢰도 검증결과 가정규범의 수용정도 문항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서울, 부산, 원주, 이리, 충주, 진주, 제주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과 학부모였으며 1993년 11월 20일 부터 12월 3일까지 설문지 800부를 배포, 회수한 결과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631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를 적용하였다.

Ⅳ.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일반적 사항

독립변인	구 분	N	%
연 령	20대	388	61.5
	40대	131	20.8
	50대이상	112	17.7
성 별	남	280	44.4
	녀	351	55.6
종 교	불교	172	27.3
	천주교	67	10.6
	기독교	134	21.2
	기타종교	5	0.8
	없음	253	40.1
주택형태	단독주택	412	65.3
	집합주택	219	34.7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함께 산 경험있다	357	56.6
	함께 산 경험없다	274	43.4
	계	631	100.0
동거가족 A. 기성세대	시아버지(아버지)	12	4.3
	시어머니(어머니)	32	11.6
	친정아버지(장인)	6	2.2
	친정어머니(장모)	9	3.3
	여자형제	17	6.2
	남자형제	19	6.9
	조카기타	5	1.8
	없다	176	63.8
	계	276	100.0
	B. 대학생	할아버지	12
할머니		51	12.9
외할아버지		4	1.0
외할머니		8	2.0
고모나 이모		4	1.0
삼촌이나 외삼촌		8	2.0
친척형제		27	6.8
없다		281	71.1
계	395	100.0	
형제(며느리)순위 A. 기성세대	장남(맏며느리)	106	45.1
	차남이하(둘째며느리이하)	111	47.2
	외아들(외며느리)	18	7.7
	계	235	100.0
B. 대학생	장남(장녀)	167	44.7
	차남이하(차녀이하)	180	48.1
	외아들(외딸)	27	7.2
	계	374	100.0

2. 연구문제 1. 가정규범 수용정도

〈1-1〉 가정규범 수용정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정규범 수용정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점 만점에 평균 2.55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의생활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용정도를 보였으며(M=2.66), 그 다음이 언어·인사(M=2.65), 몸가짐(M=2.46), 식생활(M=2.44)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보았을 때에도 식생활, 의생활, 언어, 인사, 몸가짐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기성세대가 더 높은 수용정도를 보였다. 순위별로 보면 기성세대는 언어·인사, 의생활, 식생활, 몸가짐 순이었다. 그러나 대학생은 오히려 의생활영역의 가정규범 수용정도가 가장 높고, 언어·인사, 몸가짐, 식생활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전통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생활규범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수용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에는 그 수용정도 및 수용하는 규범내용의 순위에 차이를 보여

〈표 2〉 가정규범 수용정도

내 용	영 역	M	SD
가 정 규 범 수 용 정 도	식 생 활	2.44	0.41
	의 생 활	2.66	0.31
	언 어 · 인 사	2.65	0.32
	몸 가 짐	2.46	0.39
전	체	2.55	0.28

〈1-2〉 대학생과 기성세대간의 가정규범 수용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가정규범 수용정도는 〈표 3〉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즉 기성세대가 대학생세대 보다 가정규범 수용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세대간에 어떠한 생활규범을 중시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3〉 가정규범수용 정도에 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세대차

가정규범	구분		기성세대		대 학생		t값	순 위	
	M	SD	M	SD	기성세대	대 학생			
식 생 활	2.64	0.33	2.34	0.40	9.99***	3	4		
의 생 활	2.78	0.26	2.60	0.31	7.49***	2	1		
언 어 · 인 사	2.80	0.27	2.56	0.32	10.07***	1	2		
몸 가 짐	2.63	0.37	2.36	0.37	9.13***	4	3		
전	체	2.71	0.25	2.46	0.26	11.49***			

*** P < .001

3. 연구문제 2.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

〈2-1〉 가정규범교육 필요성 인식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세대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들의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점 만점에 평균 2.87로 나타나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은 기성세대나 대학생 남녀 성별간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두 집단간에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성세대가 대학생인 자녀세대 보다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두 집단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정규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체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시대와 제반 환경이 변화한다하더라도 가정에서 해야 할

생활교육, 규범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세대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독립변인별(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 동거가족, 형제순위)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는가?

독립변인별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은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M=2.90)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조부모는 손자녀의 가정규범 교육에 중요한 훈육자의 구실을 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최근 핵가족화의 추세로 인하여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가정규범 교육적 측

〈표 4〉 가정규범교육에 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차이

구분	변인	기 성 세 대		대 학 생	
		남	여	남	여
M		2.93	2.91	2.84	2.84
SD		0.15	0.16	0.35	0.26
t		1.02		0.15	
전 체	M	2.92		2.87	
	SD			0.14	0.16
	t	4.20***			

*** p < .001

〈표 5〉 변인별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

독립변인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				동 거 가 족								형 제 순 위							
					기성세대				대 학 생				기성세대				대 학 생			
	있 다	없 다	있 다	없 다	있 다	없 다	있 다	없 다	만 이. 외 동 이	둘 째 이 하	만 이. 외 동 이	둘 째 이 하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2.90	0.14	2.84	0.36	2.93	0.12	2.91	0.14	2.89	0.14	2.87	0.16	2.93	0.13	2.92	0.14	2.87	0.16	2.88	0.16
t값	2.50*				0.96				0.88				0.09				0.38			

* P < .05

면에서 보면, 좋은 교육적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연구문제 3. 가정규범 수용정도와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

〈3-1〉 가정규범 수용정도와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전체적으로 가정규범 수용정도와 교육 필요성간에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보았을 때 식생활, 의생활, 언어·인사, 몸가짐에 대한 가정규범 모두 가정규범교육 필요성과의 정적인($P < .001$)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연구문제 4. 가정규범교육 경험과 문제점

〈4-1〉 가정규범교육 경험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사대상자의 가정규범교육 경험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표 7〉, 기혼자는 혼인을 전후해서 분때, 혼인 전(68.5%)이 혼인후(31.5%)보다 가정규범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규범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하게 한 경우 주로, 부모에게 배웠으며 선생님(17.8%), 책(14.4%), TV, 라디오, 신문(11.3%), 조부모(9.3%), 친척(7.7%), 기타(2.7%), 잡지(2.5%)를 통해서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정에서 부모는 그 교육의 주된 책임자가 되어 성실히 훈육,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규범교육은 연령에 관계없이 집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울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국민학교 시기나(26.5%), 13-20세의 중·고등학교 시기(21.9%), 국민학교 이전(14.9%)에 배운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이영미(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오늘날 가정규범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 때문(23.9%)이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정에서 가르칠 여유가 없기 때문에(19.7%), 또는 TV나 각종 매스컴의 영향(17.4%), 부모의 무관심 때문(12.5%),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11.9%), 집안에 가정규범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안계시기 때문에(7.2%), 유행하는 언어나 옷차림을 하지 않을 때 친구들로 부터 놀림을 당하기 때문(3.9%), 부모가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3.6%)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문제 5. 가정규범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5-1〉 가정에서 규범교육을 누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정에서 식사예절의 경우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며(45.5%) 아버지(32.5%), 할아버지(10.3%)가, 공손한 언어예절은 역시 어머니(41.2%), 아버지(34.9%), 할아버지(9.7%)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단정한 몸가짐의 경우는 어머니(73.4%), 아버지(11.4%)가, 바른 옷차림의 경우는 어머니(77.8%), 아버지(10.1%)가 가르치며 예의바른 인사방법은 아버지(39.6%), 어머니(33.0%), 할아버

〈표 6〉 가정규범 수용정도와 가정규범 교육 필요성간의 상관관계

가정규범 수용정도	가정규범 교육 필요성
식 생 활	0.226***
의 생 활	0.265***
언 어 · 인 사	0.202***
몸 가 짐	0.187***
전 체	0.275***

*** $p < .001$

〈표 7〉 가정규범 교육경험과 문제점

내 용	구 분	N	%	
언제 가정규범이 더 필요 한가 (기혼자만 응답)	혼인전	207	68.5	
	혼인후	95	31.5	
계		302	100.0	
가정규범에 대한 내용을 주로 누구에게서 듣고 배 웠는가? (있는데로 표시)	조부모	155	9.3	
	부모	567	34.2	
	친척	128	7.7	
	선생님	295	17.8	
	책	239	14.4	
	잡지	42	2.5	
	T.V, 라디오, 신문	188	11.3	
	기타	44	2.7	
계		1658	100.0	
언제 배운 가정규범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국민학교 이전	94	14.9	
	국민학교 시기	167	26.5	
	중·고등학교 시기	138	21.9	
	성인이 된 후	18	2.9	
	연령에 관계없이 집에서 보고 배운것	201	31.9	
	무응답	13	2.1	
계		631	100.0	
오늘날 가정규범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있는데로 표시)	· 부모의 무관심 때문	220	12.5	
	·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 때문	420	23.9	
	·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가정에서 가르칠 여유가 없기 때문	346	19.7	
	· 집안에 가정규범을 가르칠수 있는 어른이 안계시기 때문	127	7.2	
	· T.V나 각종 매스컴의 영향	306	17.4	
	·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의 부족	209	11.9	
	· 부모가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63	3.6	
	· 유행하는 은어나 옷차림을 하지 않을때 친구들로 부터 놀림을 당하기 때문	68	3.9	
	계		1759	100.0

지(13.2%)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가정규범 교육의 주된 책임은 주로 어머니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 규범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규범교육은 가정에서(81.9%)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며, 규범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며

〈표 8〉 가정규범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내 용	구 분	N	%	
다음과 같은내용을 가정에서 누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1) 식사예절	할아버지	65	10.3
		할머니	29	4.6
		아버지	205	32.5
		어머니	287	45.5
		기타친척어른	0	0.0
	2) 공손한 언어예절	할아버지	61	9.7
		할머니	28	4.4
		아버지	220	34.9
		어머니	260	41.2
		기타친척어른	2	0.3
	3) 단정한 몸가짐	할아버지	16	2.5
		할머니	31	4.9
		아버지	72	11.4
		어머니	463	73.4
		기타친척어른	1	0.2
	4) 바른 옷차림	할아버지	11	1.7
		할머니	20	3.2
		아버지	64	10.1
		어머니	491	77.8
		기타친척어른	2	0.3
5) 예의바른 인사방법	할아버지	83	13.2	
	할머니	34	5.4	
	아버지	250	39.6	
	어머니	208	33.0	
	기타친척어른	0	0.0	
규범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가정	571	81.9	
	학교	88	13.9	
	사회교육기관	5	0.8	
	무응답	21	3.3	
가정에서 규범교육은 어떤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겠는가?	·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	280	44.4	
	· 잘못했을 때마다 부모가 그때그때 바르게 가르쳐 준다.	150	23.8	
	· 따로 불러서 타이른다.	15	2.4	
	·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때 자연스럽게 분위기에서 가르친다.	176	27.9	
	· 기타	10	1.6	
규범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교에서 하는것이 효과적이라면 어떤방법이 좋겠는가?	·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	152	24.1	
	· 학교에서 일상생활지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85	45.2	
	· 학교에서 생활관 교육을 통해 가르친다.	173	27.4	
	· 기타	21	3.3	
규범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교육기관에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 교육문화센터에서 생활예절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45	23.0	
	· 사회복지기관(공공기관)에서 생활교육강좌를 개설하여 가르친다.	95	15.1	
	· T.V나 각종 매스컴에서 교육 프로그램 중 규범교육 내용을 다룬다.	306	48.5	
	· 성인이 된 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내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규범교육 내용을 첨가 한다.	63	10.0	
	· 기타	22	3.5	
계		631	100.0	

(44.4%),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가르친다(27.9%)거나 잘못했을 때마다 부모가 그때그때 바르게 가르쳐 주는(23.8%)방법이 좋다고 하였다.

규범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학교에서 일상생활지도(옷차림, 언어예절, 인사) 교육을 강화하고(45.2%), 생활관교육(예절교육)을 통해 가르치거나(27.4%),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는(24.1%) 방법이 제안되었다.

규범교육이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면 TV나 각종 매스컴에서 교육 프로그램 중 규범교육 내용을 다루거나(48.5%), 교육문화센터에서 생활예절 프로그램을 마련하며(23.0%), 사회복지기관(공공기관)에서 생활교육강좌를 개설하여 가르치는(15.1%) 방법, 성인이 된 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내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규범교육내용을 첨가(10.0%)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규범의 영역별 수용정도는 의생활영역과 언어·인사영역, 몸가짐, 식생활영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성세대가 대학생세대 보다 가정규범 수용정도가 높았다.

②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세대를 초월하여 규범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부모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필요성의 인식정도가 높았다.

③ 가정규범 수용정도와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간에도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④ 가정규범교육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부모의 과잉보호나 입시위주의 교육, TV등 매스컴의 영향,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교육시간 부족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규범교육은 부모에게서 배운바가 가장 많았고, 항상 집에서 어른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바가 많았던 점도 지적되었다.

⑤ 가정규범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은 식사예절의

경우,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며, 공손한 언어예절이나 몸가짐, 바른 옷차림은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과를 보이며 아버지는 예의바른 인사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규범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은 가정에서 실시하며 부모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거나 가족들이 모였을때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일상생활지도(옷차림, 언어예절, 인사) 교육을 강화하며 생활관 교육(예절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 TV나 각종 매스컴에서의 교육, 교육문화센터의 교육, 공공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등의 교육이 실시될때 바람직한 규범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가정규범교육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규범교육을 전통가정 생활에서의 교육이나 훈육에 기초를 둔 내용으로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교육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둘째, 가정규범교육은 세대를 초월하여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바를 볼때,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정규범교육의 책임은 기성세대나 대학생을 불문하고 부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가정규범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Program의 개발이 요청된다. 가정규범교육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그와같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을 위한 사회교육 Program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가정규범교육은 특히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그중 예의바른 인사방법 교육은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면, 가정규범교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범을 보이는 태도가 절실하다.

다섯째, 가정규범 수용정도는 기성세대와 대학생 세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는 기성세

대가 높으므로 가정규범교육을 통해서 전통가정생활 규범교육을 익혀볼 경험이 적었던 대학생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교육, 실천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양 학과목을 통해서라도, 가정생활 규범교육의 부재로 인한 생활의 문화를 다시 다잡고 재창조해 나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강길수, “조선시대의 교육고전” 「한국의 교육고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1983.
 - 2)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동문화연구원, 1987.
 - 3) ———, 「유교와 한국사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4.
 - 4)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박영사, 1992.
- 「논 어」
- 5) 배용광, “동서양 규범문화의 변화”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문고4, 1984.
 - 6) 변시민, “한국인의 행동규범”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 문화문고4, 1984.
 - 7) 憑虛閣 李氏, 「규합총서」, 정양완 역주, 서울: 보진재, 1984.
- 「소 학」
- 8)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문음사, 1987.
 - 9) ———, 「한국여성교육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 10) ———, 이원호, 「한국인의 가훈」, 서울: 문음사, 1984.
 - 11) ———, 「조선시대 여성교육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2.
 - 12) 宋尤庵, 「계녀서」
- 「時 經」
- 13) 신정숙, 「한국전통사회의 여성생활문화」, 서울: 대광문화사, 1984.
 - 14) 애드워드 실즈, 「전통」 김병서, 신현순 역, 민음사, 1992.
- 「女四書」
- 「禮 記」
- 15) 유안진,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민음사, 1987.
 - 16) 유중립, 「증보산림경제(가정편)」 서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 17) 이길표, “겨레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2.
 - 18) ———, “가정생활 문화의 미래와 전망” 「생활문화연구」 장간호,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87.
 - 19) 이덕무, 「사소절」
 - 20) 이동준, “전통적 가치관의 현대적적찰”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원찬보고논문총2, 1980.
 - 21) 이영미,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9.
 - 22) 이퇴계 (傳) 「규방요람」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 23) 정징복, “성리학의 인간관과 현대교육적 의미” 「한국의 전통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1983.
 - 24) 정양완, “규범류를 통해 본 한국여성의 전통상에 대하여” 「한국여성의 전통상」 서울: 민음사 1985.
 - 25) ———, 역주, 「내훈」 서울: 학원사, 1988.
 - 26) 「증보문헌비고」, 서울: 명문당, 1981.
 - 27) 지교현, 「한민족의 정신사적 기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28) 한기연, “효도와 교육” 「현대와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81.
 - 29) 정신문화연구원,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1990.
 - 30) ———, 「한국인의 윤리의식 연구」 1992.
 - 31) ———, 「한국 산업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의 재분제」 1992.